

# 주간기도정보

2024. 1. 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생명의 2024년 위해 겸손과 인내로 기도에 힘쓰자”

한국교회 연합기관 및 교단 신년메시지 발표



2024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되도록 하자”고 축복했다.

장 대표회장은 “특별히 바라는 새해에는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가 희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평화와 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겸손과 인내로 세상을 살리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2024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이 되는 해다. 여기까지 도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며 ‘정의와 평화, 창조 생명의 영속’을 위해 싸워온 지난 100년의 여정에 감사한다”면서 “새해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키며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늘진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적극 실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자연재해, 전쟁의 공포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면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 세상의 칭찬을 받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예장 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큰 혼란과 분열, 전쟁, 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휩싸였다. 대립과 분열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았다”면서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대립은 모두 버려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고 용서와 화해,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화평이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임석웅 총회장은 “117년 전 김상준과 정빈이 사중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보다 지금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교세와 재정과 재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복음을 사랑하지 못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회는 화려한 장식 속에 침몰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돼야 한다. 내 주변의 한 명을 교회로 이끄는 구원의 지킴이가 되는 2024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은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침체된 교회들이 회복을 넘어 활기차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면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자 소망이다. 새해에도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브리서 12:28)**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각 교단과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은 계속 변하고 흔들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몸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달리게 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대적하는 이 땅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북한의 고통 받는 동포와 복음의 진전을 위해 기도해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쪽 복음으로 신앙 이어가는 성도 있어**



북한내륙선교회(NIM, North Korea Inland Mission) 대표이자 시카고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총무인 임현석 목사가 ‘복음적 통일과 북한선교 기도 소식’을 통해 북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임 목사는 새해를 앞두고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주제와 관련,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 지난 몇 년간 중국에 체포되어 감옥 안에 있던 2,600여 명의 탈북동포 중 600여 명이 지난가을 강제 복송을 당했다”고 나눴다.

이어 “10여 년 전에 납치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는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 강제 복송이 중단되고, 또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학대를 당하는 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도록 노력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목사는 복음적 통일 선교를 위해 북한에 올바른 변화가 나타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2024년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 한국의 총선 등의 정치적 결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목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사상교양보장법과 함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신설해 외부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막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하는 주된 일들은 주민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고립시키는 일이다”라고 알렸다.

북한의 외교에 대해서는 “국제적 고립 속에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과 군사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과 푸틴, 두 독재자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긴장은 높아지고 국민의 삶은 위험과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전하며 북한을 위한 기도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편, 모퉁이돌선교회가 20년 전 중국에서 만난 북한 성도가 크리스마스 트리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힘든 환경에서도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혀 기도자들에게 소망을 품게 했다.

카타콤 12월호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20년 넘게 쪽 복음을 읽으며 믿음을 지켜온 북한 성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은 한 성도는 목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주경야독으로 읽었고 북한에 몰래 성경을 가져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출처: 기독교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3,16)**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브리서 10:35,38-39)**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약속을 품으며 힘차게 시작한 새해에도 여전히 억압과 수용소 내의 강제노동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지도부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이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를 의지할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해 흑암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북한 교회의 정결한 믿음을 준비시키사 주님의 때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복음과 기도의 증인을 통해 북한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학원복음화 크게 위축… 학교-지역교회 협력 절실**  
올 교육계 최대 이슈는 ‘서이초 사건’ ‘교권 침해’…기독교 교사들 제언 들어보니



교사들에게 있어서 2023년은 고통스러운 해로 기억될 만하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문제가 잇따르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사들은 녹록지 않은 학원복음화 사역에 이종고를 겪어야 했다.

기독교사들은 올해 최대 이슈로 ‘서이초 사건’과 ‘교권 침해’를 꼽았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동안 잠복해 있던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과 관련한 근본적인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기독교사들은 현재 학원복음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 모두가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복음화 사역 자체도 크게 위축됐다.

흥미진 교사는 “일부 학생들을 교사 가정으로 초대하거나 교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민원 소재거리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학부모조차도 학교 내에서 성경 공부 등 복음 활동이 이뤄지는 데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수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사역 자체가 꾀꾀 얼어붙은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사들이 꼽은 학원 복음화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지역교계가 구원 투수로 나서주는 것이다. 교계가 적극적으로 교회 인근 학교의 기독교사들과 네트워크를 다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다.

박준현 교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지역 교회로 안내해줄 교회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교계에서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과 친숙하게 관계를 맺어주면 학생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학원복음화 협력교회’와 같은 네트워크 조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학원복음화 사역의 핵심 멤버인 기독교사들의 적극성도 강조됐다. 교사가 학생·학급별 특성에 맞춰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면서 신뢰를 다지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최순연 교사는 “밀착 소통하면서 친해진 뒤 복음을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전하는 ‘한 장의 편지’ ‘한쪽의 안내문’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카톡’ 등으로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국민일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빌립보서 1:27-28)**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5-17)**

하나님,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학원복음화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 앞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독교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부모세대를 일깨우사 함께 협력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인들로 일어나 학교와 가정에서 다음세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대에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와 생명의 길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